

전라도 천년 국비 확보 위한 질주

도·시군 기획부서장 정책소통 협력회의 열어

지방분권 개헌 서명운동 등 주요 현안 논의

전북도는 전라도 정도 천년의 해인 2018년 연초부터 정부정책의 적극적인 대응과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도·시군의 공조 체계 확립에 힘을 모았다.

24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과 도내 14개 시군 기획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도·시군 기획부서장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은 정부정책이 민생현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북도 대응 방안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화된 지방분권 개헌 1,000만인 서명운동 확산 방안 논의와 전라도 천년 불조성 및 기념사업 발굴사례 공유,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도·시군 공조 체계 구축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졌다.

전라도 정도 천년을 맞아 역사를 재정립하고 호남권 3개 시도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 추진 중인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에 대한 불을 조성하고 이에 따른 자체사업을 발굴해 주길 당부했다.

특히, 1018년(고려 현종) 전라도와 함께 명명된 지 천 년이 된 순창군과 담양군이 공동 추진하는 '순담 메타서울 프로젝트'는 시군에서 발굴된 첫 번째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으로서, 사례 발표를 통해 시군에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했다.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정수급 빈발 4대 분야에서 무작위 표본 전수조사를 실시, 부정수급자는 사업에 배제시키고 5배 이내의 제재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시군에 자체적인 점검체계 수립

을 요구했다.

또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어 공무원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엄정히 확립하고 공무원단체 선거중립 유지, 지방공사,공단의 상근 임직원, 통리,반장 등의 선거중립 교육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병관 도 기획조정실장은 "올해에는 지방선거와 전라도 천년, 전국체전 등 중요한 행사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어느 때보다 시군과의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협력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포함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군과의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도가 최혁신 청외대 사회적경제비서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등과 함께 24일 우수마을기업인 정음시 소재 '콩사랑'을 방문하고,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사회적경제 기업인들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기업인 한자리에

청와대 사회적경제비서관, 전북 방문 현장간담회

전북도는 최혁신 사회적경제비서관,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장 등과 함께 24일 우수마을기업인 '콩사랑'(정음시 소재)을 방문,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서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인들과 함께 일자리안정자금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농업회사법인 콩사랑(서현정 대표)

은 귀리, 현미쌀을 이용한 통곡식 등 가공품을 생산판매하는 회사로 2017년 일자리 22명, 매출 14억원을 달성, 자체 운영중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도내 11개 마을기업, 35개 품목을 협업 판매하는 유통형 마을기업으로 올해는 매출 20억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울러 전북도는 최혁신 사회적경제비서관 등과 함께 전북 경제통상진흥원에서 마을기업협의회 김종록 회장을 비롯해 사회적경제기업인들을 만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 고용위축 우려 등 의견을 청취,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정부정책에 발맞춰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통해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최혁신 사회적경제비서관은 "대통령령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 해소와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며,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하며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한 만큼 이로 인해 기업들이 혼란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을 통해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시책으로 사회적경제조직 뿐만 아니라 모든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내 기업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김선영 책임연구원 농식품산업 발전 공로 장관상 수상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김선영 책임연구원이 2017년 농식품산업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산업시책유공표창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식품산업시책 및 농식품산업 발전을 이끌고 식품산업 시책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성실한 업무를 추진한 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선영 책임연구원(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에서 8년간 지역 소재 활용 고부가 식품, 건강기능성 식품, 기능성 뷰티제품 개발을 통해 고용창출, 홍보, 교육지도, 학술성과, 매출증가, 수출증대에 이바지했고 관련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 농가 소득 확대에도 기여했다고 수상 이유를 설명했다.

김선영 책임연구원이 공동 연구한 지역기업 중 (주)케이젠은 기능성식품과 뷰티제품 등의 생산, 판매를 통해 전라북도 선도기업으로 성장했다. 또한 전

라북도 내 임실생약영농조합법인은 공동기술개발사업종료 후 현재까지 17만 m2 재배 및 6차산업화를 추진하며 지역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대표기업으로 성장했다.

2016년에는 지역 소재를 활용한 건강기능성 효과 입증과 도시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농민과 기업, 소비자가 상생하는 도시형 6차산업화 모델을 제시했고 현재 영농조합법인 애농과 들깨새싹을 활용한 혈당조절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을 추진하는 등 지역 소재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강열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이번 수상으로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 지역 농민, 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으며 향후 지역 농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채규남 기자

"작은나눔으로 큰 희망 줄 수 있도록"

전주시의회 김명지 의장,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김명지 전주시의회 의장(사진)은 24일 의정실에서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에 2018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날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김광호 회장과 이진웅 사무처장, 이복순 대한적십자봉사회 완산지구협의회장, 박종관 대한적십자봉사회 덕진지구협의회장 등과 간담을 나누는 자리에서 각종 재난구호활동과 사회봉사활동으로 적십자 인도주의에 적극



동참해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김 의장은 "적십자회비는 이재민 구호와 취약계층 지원,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전개 등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작은 나눔으로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적십자 회비 모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적십자회비는 전국의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법인,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모를 통해 참여하는 모금으로 전북 지사는 올해 17억 700만원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채규남 기자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강의

전주 덕진구선관위, 송천1·2동 통장 등 100여명 대상

전주시덕진구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송천1·2동 통장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선거사무관·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회,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가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통·반장(주민자치위원)이 알아야 할 선거법 상식과 사례 위주로 관내 통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채규남 기자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